

12

문지연 오월애공예협동조합 대표 (아이디어팩토리)

“5·18 민주화 운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오월애만의 방식으로 풀어냈죠”

오월애공예협동조합은 유아교육전공자들이 모여 만든 공예협동조합이다. 문지연(48) 대표는 광주의 역사인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교구와 교재의 부족함을 느꼈다. 이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5·18 관련 교재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오월애 공예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조합에는 문 대표를 포함해 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현장전문가들이다. “저희 조합원 모두가 경력 단절 여성들이예요. 오랜 기간 유아교육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결혼과 출산·육아로 인해 긴 시간 경력단절이 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전남대에서 추진 중인 아이디어팩토리 사업을 접하게 됐어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우리의 재능과 사업방향을 결합시켜야 했죠. 그러다 문득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인데, 정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5·18 운동 교육 자료를 공예와 결합해 만들면 좋겠다 싶었어요.”

오월애에서 만든 교육·교구 자료는 공예와 결합해 좀 더 쉽게 다가간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5·18 사적지 퍼즐은 30여 곳에 가까운 5·18 사적지를 퍼즐로 제작해 유아·초등생들이 색칠을 하며 당시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를 간접적으로 접해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햇불 하바리움은 5·18 운동 당시 진압군에 맞서 가족과 자유를 지키고자 스스로를 태운 5·18 희생자와 그 가족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표현했다. 하바리움은 감싸는 세 개의 불길은 각각 승고한 희생, 물러설 수 없는 정의, 자주적 공동체를 뜻한다. 조합에서는 워크북도 제작했다. 5·18 주요 사적지를 아이론화 해 웃음을 하거나 선긋기, 색칠하기 등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게 제작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아픈 역사지만 그 안에 있었던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 열망과 협동, 단결의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 보람되죠. 늘 이야기하지만 더 다양하고 교육의 효과가 기대되는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오월애가 제작한 5·18 운동 교재·교구는 5·18 기념재단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교육청, 교원연구회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5·18 민주화 운동 교육사업은 오월애의 첫 프로젝트로 이후 사회적 문제를 공예로 풀어 대중에게 쉽게 알리는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수많은 경단녀들의 제 2의 인생을 함께 할 동반자 역할도 맡는다. 창업을 꿈꾸지만 엄두를 못내는 경단녀 주부들에게 공간을 공유해 창업지원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다.

“5·18 민주화 운동을 오월애의 첫 프로젝트로 정했는데요. 앞으로도 기후환경문제나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문제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광주 복구의 수많은 경단녀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오월애의 공유공방을 통해 창업 준비 및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①



설립 연도 2020년 11월 | 주요 사업 5·18 민주화 운동 교육 교구 및 교재 제작
성과 제41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사업 참여 등